

이름 조미선

1. 파견대학 관련

|                                 |   |
|---------------------------------|---|
| 파견대학                            | 일본 하고로모 대학  |
| 파견기간                            | 2011년 9월 ~ 2012년 7월   |
| 귀국여부                            | 네 (                      ) 아니오 (                      )<br>"아니오"인 경우, 귀국 예정일을 적어주세요. 8월   |
| 수강과목(2011 Fall) 및<br>과목별 수강평가   | 본인이 수강한 과목명,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
| 수강과목(2012 Spring) 및<br>과목별 수강평가 | <p>Advanced English 1 - 원어민 교수님이 진행하는 수업. 매주 시작할 때 지난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꼭지시험합니다. 1이기는 한데 조금 어렵네요.</p> <p>경영전략론</p> <p>재무관리 (파이낸스) -배운 적이 있기는 한데, 다시 한번 배우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토요타의 재무재표라던가를 보면서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들 하나씩 말하고 그렇게 진행되요.</p> <p>전문세미나 - 우송대학교 학생들과 같이 듣는 수업이에요. 경영학에 대해 배우기도 하고, 일본어 공부 하기도 하고 그래요.</p> <p>무역교?론 - 저의 제1전공이 국제통상학과인 만큼 이전에 배운 적 있기는 한데, 다시한번 듣고싶어서요. 교수님이 좀 깐깐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p> <p>세일즈메니지먼트실무 - 저희학교에는 없는 과목이라 듣고싶어서 신청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 톤이 장사꾼 같은 기분이라 재미있네요.</p> <p>비즈니스실무 - 자격증 대비 수업이에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 안보면 학점 안주신다고..... 수업시간에 연습문제를 풀어요.</p> <p>마케팅1 - 저희학교에서도 들어본 적 있는 수업이라 내용이 겹치는 것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처음 듣는 내용도 조금 있는 듯 싶어요. 매 시간마다 영상이나 기사를 보고 주어진 문제풀이를 합니다. 프리젠테</p> |

|                  |   |
|------------------|---|
|                  | <p>이선 내용들을 공책에 정리해두면, 시험 볼 때 교과서는 보면서 치면 안되지만, 공책은 보면서 쳐도 되기 때문에 시험 보기 편해져요.</p> <p>비즈니스법규 - 저희 학교에 없는 과목이라 신청했습니다. 세미나 담당 교수님이 가르치세요. 시험볼 때 오픈북이 가능합니다.</p> <p>아시아경제론 - 이것도 저희 학교에 없는 수업이라 듣고싶어서 신청했어요. 매 시간마다 프린트가 나가는데, 교수님이 애들 졸지 말라고 중간중간에 블랭크 처리해서 나눠주셔서, 프리젠테이션 보면서 비어진 부분 채워넣느라고 바쁘네요.</p> <p>정보처리론 1 - 컴퓨터 수업이에요.</p> <p>정보네트워크론 - 이것도 컴퓨터 수업.</p> |
| Tuition 외 지출한 비용 | 잘 모르겠어요.  |

## 2. 생활전반 관련

|            |   |
|------------|---|
| 숙소         | <p>학교기숙사( <input type="radio"/> ) : 페스트럴</p> <p>홈스테이 ( <input type="checkbox"/> )</p> <p>외부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p> <p>기타( <input type="checkbox"/> )</p> |
| 숙소비용       | 30000엔  |
| 숙소평가       | 바퀴벌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만나와서 다행이었어요. 방 규모는 혼자 지내기에 적당한 것 같았습니다.  |
| 식사         | <p>학교 Meal Plan ( <input type="checkbox"/> )</p> <p>학교식당 개별이용 ( <input type="radio"/> )</p> <p>직접 요리 ( <input type="radio"/> )</p>                                    |
| 식사비용       | <p>학교 식당 이용은 싸면 300엔 비싸면 400엔이요.</p> <p>직접 요리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장을 봐 오는데, 갈 때마다 3000엔 정도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p>   |
| 식사평가       | 전체적으로 맛있어요. 1주일마다 스페셜 메뉴(면, 정식, 덮밥)가 바뀌는데, 사실 스페셜 메뉴 먹으러 학교 식당 가는 점도 있네요.   |
| 보험         | 잘 모르겠어요.  |
| 한달 생활비(대략) | 대략 6만엔정도 들은 것 같아요.  |

## 3. 교환학생 파견 전 한국에서 미리 알고 갔으면 좋았을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 이것만 알고 갔어도 그런 시행 착오는 피할 수 있었을텐데...

4. 결과보고서 (자유형식) : 글자크기 10, A4 1장 이상

-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교환학생을 신청하고, 면접보고, 합격 통보를 들은지가 어제같은데 벌써 결과보고서를 쓰고 있네요. 다다음달이면 일본을 떠날 것을 생각하니 아쉬운 기분이 들었는데, 결과보고서를 쓰고 있자니 기분이 다시 한번 묘해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고. 특히 제가 이곳에 와서 학생부에 든 것은 잘 한 일인 것 같아요. 이곳에 와서 만난 학생부 일 하고 있는 오빠에게 권유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덕분에 학교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거든요. 대학제, 일루미네이션, 졸업식, 입학식에 참여했는데, 제가 학생부 들어갔을 때는 대학제 준비&회의가 한참이었고, 그래서 특별히 맡은 담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에서 설치한 본부 부스에서 일하기도 하고(대학제에 온 사람들에게 팜플렛 나눠주고, 게임 진행하고), 게스트 관련 일(무대와 게스트 대기실 청소하기. 진행요원 일하기. 공연 설비 운반하기)을 하기도 했지요. 이틀동안 진행했는데, 낮 일찍 와서 밤 늦게 돌아가고 그랬기에 피곤하기는 했지만, 그런만큼 굉장히 보람있었던 것 같아요. 게스트는 ONE DRAFT라고 힙합 아티스트가 왔는데, 공연이 끝나고 같이 사진 찍고, 사인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일루미네이션은 크리스마스에 맞춰 한 행사인데요, 트리처럼 학교 꾸미고 정해진 기간동안 저녁 6시 넘으면 전구키고 그러는 행사였습니다. 첫날인 점등식 때는 게임도 하고 음식(수프랑 카르피스는 음료수를 데워서)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 때 게임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사은품 준비하고, 게임 진행 돕고 그랬네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국도 꾸미기야 하지만, 일본은 각 가게마

다 꾸며져 있는 것이. 한국보다 스케일이 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졸업식과 입학식은 일본의 졸업식과 입학식은 이렇구나 하고 참여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쉬운 점은 콘서트에 많이 다니지 못한 거네요. 출국 전에 콘서트 티켓팅을 해놔서 참여한 콘서트가 있기는 한데, 그것 말고는 세금 내랴, 식료품 사랴 자금에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못다니고 있다가, 귀국 날이 다가오는 요즘 아쉬움에 콘서트에 3번정도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주에 콘서트 하나 잡혀있고요. 그것이 제가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는 동안에 본 마지막 콘서트가 될 것 같네요. 특히 연말에 열리는 자니스 카운트 다운 콘서트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자니스 라고 일본에서 큰 엔터테인먼트에서 하는 콘서트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가수들이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도 있는 만큼 보고싶었는데, 팬클럽에 가입되었지 않은 탓인지 정보를 얻기 힘들더라구요. 아마 정보가 있었어도 티켓팅이 힘들어서 참여 못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아쉽네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방학 때 자전거 타고 곳곳 여행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에요. 겨울방학 끝나고 봄방학 하기 전, 그 학기에 발을 접질러버려서..... 계단에서 뛰다가 다쳤는데(왜 뛴는지 아직도 후회중이에요..), 이전에도 접지른 적 있었고 그 때마다 곧 나았으니 별 것 아니겠지 싶었더니 꽤나 오래가더라구요.. 양호실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집 가서 얼음 찜질 좀 하다가 하도 안나서 병원다녀왔는데, 작은 병원 다니다가 큰 병원으로 옮기니까 그곳 의사가 말하기를 깁스 해야되더라고요 3주동안. 그런데 그 시기동안 걷기 힘들어서 절뚝 절뚝 걸어야했으니... 생활하기에 불편하게 되기 까지 한 한달 넘게 걸린 것 같네요. 그래서 자전거 여행도 당연히 못하게 되고...

향후 계획은 28일에 한국에서 친구 온대서 같이 지낼 예정이에요. 제가 일본에 있는 동안 몇몇 친구들이 일본에 방문했다가 돌아갔는데, 아마 그 때처럼 교토랑 고베 돌 것 같네요. 나라도 유명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제가 생각하건데 나라는 사슴 빼고서는 볼 것이... 교토는 옛 수도인 만큼 경주처럼 역사적인 건물들이 많고, 고베는 상당히 이국적인 면모가 있는 도시라. 그렇게 돌아다니려구요. 오사카는 당연히 관광시켜줄거고요. 그리고 7월 초에 일본어 능력 시험을 봅니다. 1급 아직 못땀 터라 재도전 하는 것인데,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기도 했겠다 그 결과물로 꼭 따고 싶네요. 비즈니스 실무 시험도 칠거고요. (지금 신청은 해놨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7월도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귀국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고 오겠습니다.